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97 72465 870009 11
ISSN 2465-8707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vol.30 2017 3/4호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2017

3/4호

vol.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사회적기업과 함께 한 10년
사회적기업의 오늘
사회적기업의 내일

th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 · 8층
www.socialenterprise.or.kr
Tel. 031-697-7700
Fax. 031-697-785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www.socialenterprise.or.kr

발행일
2017년 9월 30일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 · 8층
www.socialenterprise.or.kr
Tel. 031-697-7700
Fax. 031-697-7853

기획 · 디자인
주식회사 지지씨에스

사진 · 취재
피정우 작가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본지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7 {10th} 2017

CONTENTS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3/4호 VOL.30

10 Years Together

TOGETHER

04 이미영,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05 구자덕, (주)리맨 대표
06 사회복지법인 가나안근로복지재단 가나안복지관
07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08 박상선, 농업회사법인 (주)해들녘애 대표
09 조세종,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박준영, (주)세진플러스 대표
10 행복나눔재단 / 우리은행 / LG전자
11 경상북도 / 서신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팀장 /
김정분, 한국임업진흥원 부위원 /
김수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사원

Social Enterprise Today

PRESENT

14 탐방취재 _ 성동구 공정여행
15 포장폐기물 제로 스토어 _ 더피커
16 태국에서 온 소소한 행복 _ 사바이아롬
17 일어나라 공정무역 _ 더페어스토리
18 아프리카스퀘어 / 소녀방앗간
19 언더스탠드에비뉴 / 마리몬드
20 도심 속 도자기 공예 _ 희락공방

Gallery

SE GALLERY

22 작은 미술관 'A WORK'

Social Enterprise Tomorrow

FUTURE

26 종교와 사회적기업이 함께 그리는 미래
28 공동선의 가톨릭 _ 가톨릭 화목복지협동조합
30 자비와 나눔의 불교 _ (사)자연음식문화원
32 말씀 실천의 기독교 _ 장터사회적협동조합

OVER SEA

34 글로벌 지역재생 사례와 그 함의

Autumn Special

낙(樂) & 서(書)

36 음악 듣는 낙(樂)에 산다 _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37 행복한 가을 독서를 싣고 온다 _ 행복한아침독서

SEASON GOODS

38 e-store 36.5 _ 온라인에서 득템하자!
40 store 36.5 _ 온(溫)플레이스 은평점!

NEWS & Culture

42 **NEWS**
44 **Q&A**
46 **CULTURE**
48 **BOOK**

사회적기업
그 10년의 기록 PART2

최선은 가치를, 노력은 보람을 선물한다.
이제 반석 위에 새겨진 이름들을 되새기며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지난 2호에 이어 10주년 기념 유공 포상자들의
수상소감과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신념을 소개한다.

10주년 기념식 유공 포상
이미영,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구자덕, (주)리맨 대표
사회복지법인 가나안근로복지재단 가나안근로복지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상선, 농업회사법인 (주)해들녘애 대표
조세종,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박준영, (주)세진플러스 대표
행복나눔재단 / 우리은행 / LG전자
경상북도 / 서신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팀장 /
김정분, 한국임업진흥원 부위원 / 김수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사원

production

생산[生産]

과거의 무분별한 생산은 자원 부족, 환경파괴, 기후변화, 불공정 무역을 초래했다. 소비가 욕심을 버리고 착한 소비로 변신했듯이 생산 역시 공정과 재생의 가치를 통해 착한 생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FAIR TRADE KOREA 이미영,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 국무총리 표창

| 소감한마디 |

사회적기업 육성 10주년을 맞이해 받은 상일뿐만 아니라, 올해가 회사 설립 10주년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개인상이지만 모든 사회적기업가들을 대신해 수상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직원들과 고객분들, 그리고 공정무역을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에게 '생산'이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생태적 임팩트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활동. 그리고 경험하면 할수록 너무나 어려운 일.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우리나라 공정무역 1세대 기업이다.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상업적 조직 형태로서의 공정무역기업으로서는 최초라고 봐도 무방하다. 2007년 회사가 설립된 후, 빈곤국가 여성들이 생산한 원료와 제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해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그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의 존엄성을 지킨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공정무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다 인간적인 시장 형성에 기여케 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이듬해 국내 최초의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 '그루(g:ru)'를 출시한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현재, 네팔 · 방글라데시 · 인도 · 베트남 · 캄보디아 · 모로코 등 6개국의 25개 생산조직과 함께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패션 분야에만 집중했으나 점차 의식주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바이오벤처와 협업해 공정무역 소재 및 화장품을 개발하며 생산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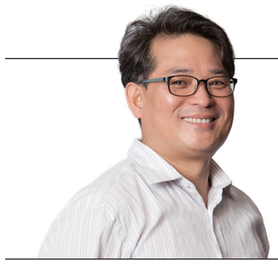
이미영 대표는 1993년부터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동했는데, 2000년부터 여성환경연대에 몸담으면서 개발도상국의 여성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꾸준히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때 제3세계 여성들의 빈곤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무역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마침내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공정무역 1세대로서 이제는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국내 공정무역이 시장성을 강화하고 규모화 되기 위한 고민들과 함께, 비슷한 분야의 소규모 업체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역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공정무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의 이사 활동을 비롯해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시 시민청에 위치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며 이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회사 설립 직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지어졌다는 브랜드명 '그루'는 나무를 세는 단위이자, 영적인 스승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표와 같은 공정무역 1세대들이 10여 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제는 한 그루 한 그루 튼튼한 나무들로 성장해 어느덧 울창한 공생의 숲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디지털을 만드는 사람들

REMANn 구자덕, (주)리맨 대표 – 국무총리 표창



| 소감한마디 |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동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웠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리맨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책임감을 가슴에 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화려한 디지털 기기의 세계에도 어두운 이면이 있다. 최첨단의 신제품들이 쏟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기존 기기들은 버려져야 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 환경을 파괴하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폐기 제품의 상당수 부품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중고 컴퓨터는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400만 대나 배출되고 있지만, 재이용률은 10% 정도라고 한다.

리맨은 바로 이점에 착안해 중고 컴퓨터를 재제조하는 기업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일조하고 있다. 중고라고 해서 단순히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능과 품질검사를 통과한 컴퓨터만을 고르고 새 부품을 사용해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중고 컴퓨터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해 관공서나 기업의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리맨의 역량은 비단 컴퓨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니터의 재생은 물론, 최근에는 기업의 컴퓨터들을 재정비한 후 사내에 재배치하거나 사회공헌을 위해 기증하도록 돕는 용역 서비스인 'IT자산 재사용'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REMANn이라는 사명은 재제조(REmanufacture) + 사람(MAN) + n(계속 이어질 아름다운 가치)을 뜻합니다. 디지털 IT기기의 재제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자덕 대표는 '아름다운 디지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기업 슬로건을 강조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깨끗하게 정비해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에 참여했으며, 국내외 정보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리맨의 지난해 매출은 78억 원이다. 올해는 9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자사 제품을 미국 · 태국 · 필리핀 등에 수출해 얼마 전 누적 수출액 300만 불을 돌파했다.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비상하는 리맨!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부럽지 않은 우리의 리맨!!

리맨에게 '생산'이란?
못 쓰는 물건도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재생'의 개념까지 확장해야 하며, '새롭게 만들다'보다는 '알맞게 만들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리맨의 신념.

welfare

복지[福祉]

복지는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하는 경제논리, 제로썸의 원리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복에 복을 더해 나와 당신과 우리가 행복해지는, 복지는 측정 불가능한 행복을 창출하는 일이다.

가나안근로복지관 CANAAN WORKFARE CENTER 사회복지법인 가나안근로복지재단 가나안근로복지관 – 국무총리 표창

| 소감한마디 | 백승완 관장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나란히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 상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른 사회적기업들에게도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해주시고 평등하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장애인 대상의 복지사업과 근로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최초로 재제조 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해 공공기관 및 기업 1,600여 곳에 납품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장애근로 사원들의 임금과 복지사업비에 쓰고 있다. 재제조 토너카트리지란 사용 완료된 폐토너카트리지를 분해하고 세척한 뒤, 주요 소모품들을 교체하고 새 토너 등을 주입해 정품과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좋은 품질에 가격은 정품의 3분의 1 수준이고, 폐토너카트리지를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이용 훈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장애인 인식개선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 경기도 성남시 1호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2011년 경기도 대표 사회적기업 지정(경기도청), 2015년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 스타기업'에 장애인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고민도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첨단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면 어쩔 수 없이 종이 인쇄가 감소하고 결국 프린트 및 복사기의 토너카트리지 사용 역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먹거리로 영농공동체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자연과 함께할 때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때문이죠. 이제 장애인 사회적기업들도 미래를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분야에 41년째 몸담고 있는 백승완 관장은 '기본을 지키며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것'이 가나안근로복지관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의미하는 가나안.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장애인들의 풍요로운 복지미래의 땅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고 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에게 '복지'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는 인권과 자립이다. 장애인은 더 이상 대상자가 아니라 주체자이므로.

사회적기업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Wonju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소감한마디 | 박준영 이사장

우리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힘찬 도약을 하려는 시기에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무척 힘이 됐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시장경제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활물자의 생산 및 구매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라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의료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료인들이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원주의료사협) 역시 조합원과 강원도 원주시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2년에 설립돼 2007년 10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거쳐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주의료사협 설립 인가를 받았다. 원주의료사협은 현재 조합원 1,448가구를 중심으로 밝음의원과 밝음한의원, 건강검진 서비스로 구성된 의료사업부,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를 운영하고 있다.

박준영 이사장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복지의 첫발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위한 과잉진료가 아닌 환자를 위한 적정진료, 항생제 등을 통한 당장의 효과보다는 환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치료, 철저히 검증된 안전한 약품(약재) 선택, 기구 및 소모품 등의 철저한 감염관리 등은 의료인이 지켜야 할 기본이다. 기본이 지켜지면 복지는 또 다른 복지를 부른다.

"그동안의 복지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대상자를 유형별로 나누는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통합적 복지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죠. 우리 조합이 추구하는 복지는 통합적 복지입니다. 의료복지는 물론이고, 고용복지, 주거복지를 아우르는 건강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원주의료사협은 이러한 통합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위탁사업 '위스타트원주마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위스타트원주마을'은 우리(WE) 모두가 함께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취지의 주민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 모임과 지역보건사업, 빈곤층 의료지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회원단체로 활동하며 원주시의 토털 복지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게 '복지'란?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의료와 보건, 건강,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

신토불이[身土不二]

농촌의 자연과 현지인, 귀농인, 다문화인이 함께 힘을 합쳐
신토불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

farm

해들녘애 박상선, 농업회사법인 (주)해들녘애 대표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소감한마디 |

농촌지역 안에서 '농촌과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는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강진군의 추천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10주년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진한 보람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해들녘애에게 '신토불이'란?
대한민국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각종 농산물을 먹는 것, 그것이 곧 신토불이!

해들녘애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재배하는 여주와 고구마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여주는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인 작물로 혈당 수치를 줄이는데 효능이 있는 카란틴(Charantin)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장수를 부르는 도깨비방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틈새 신소득 작물로 각광받으며 여러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고, 강진군과 해들녘애의 노력으로 이제는 어엿한 강진의 특산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주 가공제품으로는 여주차, 여주과립, 여주엑기스, 여주클렌즈8 등이 출시되어 있다. 그 중 여주클렌즈8은 여주와 다양한 과일, 채소 등을 액상 분쇄해 동결건조한 고체형 해독주스로, 해들녘애의 대표 상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박상선 대표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강진에 정착한 외지인이었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일하며 완벽하게 강진에 녹아들었다. 회사의 또 다른 주력 상품으로 호박고구마말랭이를 선택한 이유도 고구마를 가공하고 완제품으로 만드는 일이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작업이라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강진의 청정 산지와 바닷가 황토에서 자란 고구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식감이 말랑말랑하다고 하니 해들녘애에게는 안성맞춤 효자 작물임에 틀림없다.

"저희가 도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농사용 방석의자 '쪼그리' 생산입니다. 재봉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과 다문화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시작했죠. 아직은 판로 확보가 만만치 않고 중국산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기술을 살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들녘애는 여주의 생산, 가공 및 판매, 그리고 체험관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는 여러 가지 일거리로 숨 가쁘게 돌아간다.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박 대표의 노력으로 해들녘애는 강진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pioneer

사회의 어두운 이면, 척박하고 메마른 불모지를 찾아내 개척하는
선구자 정신으로 사회적기업은 오늘도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세종,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대통령 표창

| 소감한마디 |

사회적기업의 지난 10년은 주춧돌을 놓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사회적 경제,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종 감사는 2002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초기부터 조직 교육위원장,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대전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정착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조합원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적정 의료 구현, 질 높은 의료 서비스 공급,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수행 등 지역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강화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종 감사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2007년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원년 사회적기업으로, 의료복지협동 조합의 선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역사회의 건강자원으로 키워가고 있다.

SEJINPLUS 박준영, (주)세진플러스 대표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소감한마디 |

수상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도 이어나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박준영 대표는 39년 경력의 봉재 패션 전문가로 섬유합판 제작기술을 활용한 신섬유 건자재, 폐섬유파렛트 제품 등을 개발했다. 세진플러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클린사업장으로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이너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국내생산 의류를 만들고 있으며,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제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박준영 대표는 장애인 고용과 재활교육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교복 전문 브랜드 '사나래'를 론칭해 다각적이고도 실용적인 장애인 복지에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CSR

아름다운 상생의 터전을 다지기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 행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훈훈하게 완성하고 있다.

SK 행복나눔재단 (재)행복나눔재단 – 대통령 표창

| 소감한마디 |

이번 대통령 표창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사회 혁신과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 곳곳에 지속가능한 행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SK그룹의 사회공헌 전문 조직으로 2010년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세상 사회적기업 콘테스트'를 론칭했으며, 2016년 이를 임팩트 투자 공모전으로 발전시켜 1,231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했다. 지금까지 총 18개 기업에 38.5억 원을 투자했으며,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예비 창업가, 대학생 등 인재를 발굴하고, 교류 증진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은행 WOORI BANK (주)우리은행 – 대통령 표창

| 소감한마디 |

이번 대통령 표창은 금융권에서의 유일한 수상이어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은행은 2013년 '포스텍사회적기업펀드(8.5억 출자)', 2015년 'CCVC소셜벤처투자조합(6억 출자)' 등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출자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전문적인 재무 ·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각종 사업 지원, 물품 구매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LG LG전자(주)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소감한마디 |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기 위해 애쓰신 사회적 경제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금융 지원, 공간 지원, 성장 지원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과 LG 모두,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영속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민간기업과 정부, 학계, NPO 등 각 조직의 전문성을 살린 다자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친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총 12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했고, 고려대학교(안암동) 산학관 내에 소셜 캠퍼스를 조성해 공간 대여 및 입주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upport

함께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디딤돌과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용기와 격려, 지원은 우리 사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고귀한 덕목이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국무총리 표창

| 소감한마디 |

자치단체로 유일하게 수상하여 영광입니다. 우리 도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치단체 중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207개사)했고,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을 설립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왔다. 또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를 구축(청년괴짜방)하는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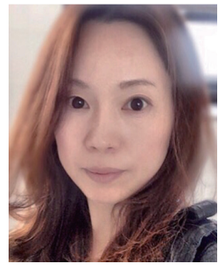
Kofpi 한국임업진흥원 김정분 부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소감한마디 |

제 인생의 꿈같은 큰 의미가 됐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 힘들 때마다 함께한 신나는 조합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김정분 부위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일원으로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부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매년 상 · 하반기 2회씩, 모집공고, 신청기업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지정심사 등을 통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서신혜 팀장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소감한마디 |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또 저와 같은 지원 업무를 하는 선배들과 현장에 계신 사회적기업 대표님들께 죄송하단 생각도 듭니다. 사회적기업의 모토처럼 100년을 이어갈 사회적 경제의 가치 확산에 앞장서는 사회적기업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서신혜 팀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나눔과 연대 · 협동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우리 지역에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한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Siheung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김수호 사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소감한마디 |

이 상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의 협업으로 이룬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고용이 증대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김수호 사원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판로지원 성과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부서별 별도 계약 사항을 사회적기업 우선 계약으로 변경했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정기교육을 시행해 구매율 증대에 앞장섰다.

여행을 떠나자! 성수동이 키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울창한 숲으로!

서울숲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조성 과정부터 함께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컸다.
마찬가지로 서울숲 옆 성수동 골목도 사회적 경제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어느덧 울창한 숲을 이루며 달콤한 열매를 맺고 있다.
마을의 일상과 사회적 경제의 볼거리가 골목 구석구석 넘쳐나는 곳
성수동 사회적 경제 둘레길에서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성동구 공정여행 '성수동 사회적 경제 둘레길'
더피커(the picker)
사바이아롬(Sabai-arom)
더페어스토리(the fair story)
아프리카스퀘어(Africa Square)
소녀방앗간
언더스탠드에비뉴(Under Stand Avenue)
마리몬드(MARYMOND)
희락공방

성동구 공정여행 **성수동 사회적 경제 둘레길**

20인의 여행자들과 함께한 반나절의 여행 그리고 즐거운 수다

Seongsudong Rising! 지역 명물로 떠오른 성수동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5년에 개장한 서울숲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서울숲이 유명했을 뿐 동네 자체는 서울숲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성수동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목골목에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 있던 서울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 그런데 최근 3~4년 사이에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저렴한 임대료와 교통 편리성, 숲세권이라는 메리트 때문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는 '마리몬드', 시골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한식집 '소녀방앗간' 등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자라미'와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주)위누' 등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등이 속속 자리를 잡더니 어느덧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가 형성됐다.

이곳 소셜벤처 밸리에는 무려 17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1,400여 명의 청년혁신가들이 모여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성동구청 내 소셜벤처팀이 신설되기도 했다. 게다가 전국 최초로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니, 이곳 성수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경제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전한 성수동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도시재생의 훌륭한 단초를 제공하며 지역 명물로 떠올랐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외지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재생도시 성수! 스토리여행'이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과 이야기가 있는 골목여행(4코스)'과 '가치 놀자! 공정여행(2코스)'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5코스인 '성수동 사회적 경제 둘레길'이 성수동표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특화돼 있다.

다람쥐, 피터팬, 환타, 소소, 수달, 대구가시나 성수동에 오다

늦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9월의 어느 좋은 날. 서울숲 방문자센터에 여행자(참여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성수동 사회적 경제 둘레길' 여행은 '여행자가 지역을 배우고 이해하다'라는 큰 주제로 진행되는 마을 여행의 일환이다. 이번 여행의 안내와 해설을 맡은 성동구공정여행사업단 백영화 대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행자 20명이 모두 모이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여행자는 각자 재미난 별명을 적은 이름표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자신을 소개한 후, 두 명씩 짝을 지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반나절이라는 짧은 여행시간을 동료들과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주최 측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자들은 서로의 별명을 부르며 화기애애하게 성수동 정착자들을 찾아 나섰다.

1 우리가 수고로운 만큼 지구가 건강해진다

탁 트인 서울숲을 벗어나자마자 성수동의 아기자기한 골목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성동구는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도 유독 평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걷기 편했고, 담벼락에 새겨진 앙증맞은 벽화며 화단과 나무, 감각적으로 리모델링된 건물 등이 시선을 끌었다. 여행자들이 처음 방문한 '더피커(the picker)' 역시 주택을 깔끔하게 개조한 모습이었다.

'수확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더피커는 '포장폐기물 제로 스토어'를 표방하는 친환경 식료품 매장 겸 레스토랑이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모든 식재료는 소분 및 포장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진열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용기에 필요한 만큼 담아 무게 단위로 계산해 구매해야 한다. 백미, 현미, 찰흑미, 서리태 등 국산 곡류 및 과채류는 국내 영농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들여오고, 해외 작물은 모두 친환경 ·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들이다. 또한 재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여행자 (걱정스러운) 이렇게 해서 이윤이 남아요?

정착자 (당황) 식료품 구매 방식이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고 계십니다. 수익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레스토랑 파트도 잘되고 있고요. 개업한지 1년이 넘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 송경호 대표

해설자 (살짝 무안한) 여기 음식이 여성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행자 (근심 걱정)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정착자 (모두가 웃음)

(웃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태국에서 온 소소한 행복과 스윗한 감성

두 번째 여행지는 태국의 웰빙 바디케어 브랜드 '사바이아롬(Sabai-arom)'의 한국 매장이었다. 태국어로 소소한 행복(simple happiness)이라는 뜻의 사바이아롬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태국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로, 태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과일과 꽃, 식물, 그리고 수 세기 전부터 전해져 오는 태국의 전통 요법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사바이아롬은 화장품 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동물실험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농촌 커뮤니티와 직접 계약을 맺고 원재료를 제공받고 있어 모든 원료는 100% 식물성분이다. 현재 방콕을 비롯해 일본 도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 자체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곳 성수동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여행자 일행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오늘살롱'을 지나쳤다. 오늘살롱 역시 지역 명물 중 한 곳이다. 이곳은 사회적기업가들이 모일 수 있는 3층짜리 커뮤니티 공간으로, 2층과 3층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디웰(D-Well)하우스'가, 1층과 지하에는 카페와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도서관이 마련돼 있다. 현재 16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자들 간의 허물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여행자

아바이 아니, 사바이아롬 뜻이 뭐라고 하셨죠?

정착자

네, 태국어로 소소한 행복입니다. / 신초이 주임

여행자2

소소...? 우리 중에 소소 있지 않았어요? 소소씨~

(모두가 웃음)

여행자3

(수줍게) 근데 문제는 가, 가격인데... 비싼지, 싼지...

정착자

대부분 1만 원대입니다. 스크럽 종류만 2만 원대이고 핸드크림 작은 사이즈는 4,500원이라서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여행자4

얼굴에 뭐 바를 거 없어요? 오늘 화장을 안 하고 나와서 하하.

(모두가 웃음)

정착자

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 샘플이 마련돼 있어요.

3 짧은 듯 길었던 공정무역 이야기

정착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여행자분들 앞에서 3분 스피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 임주환 대표

(15분 경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자

3분이 엄청 길게 느껴지네요.

(모두가 웃음)

정착자

연애 안 해보셨군요. 원래 잠깐만 얘기하자고 해놓고 길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웃음)

여행자

아프리카 제품은 대게 화려한 원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 제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착자

예리하십니다. 저희 제품들은 국내 디자이너와 아프리카 생산자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감성 중심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뒤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세 번째 여행지인 '더페어스토리(the fair story)'는 저개발 국가의 공정무역 업체를 발굴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와 제품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공정무역기업으로 브랜드숍인 '펜두카 & 스마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펜두카(Penduka)'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의 장애 · 빈곤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라고 한다.

나미비아 말로 '일어나라(Wake up)'는 뜻인 펜두카는 이름처럼 소외된 여성들에게 기술교육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 ·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펜두카 제품은 주로 쿠션, 액자, 앞치마, 카드 지갑, 파우치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생활 소품들이고, 여기에 나비미아 여성의 소소한 일상이 전통 자수로 새겨져 있다.

또 다른 브랜드 '스마테리아'는 캄보디아 여성들이 만드는 업사이클링(up-cycling) 패션잡화를 생산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도시 개발 계획으로 강제 이주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스마테리아는 재활용 소재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파우치, 지갑 등의 패션 잡화는 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 혹은 폐어망, 버려진 소파, 오토바이 시트 가죽 등의 소재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지극히 친환경적이다.

4 아프리카 직원의 한국말 사랑

아프리카스퀘어(Africa Square)는 더페어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비영리단체 그리고 아프리카 현지 상품 등을 판매하는 브랜드 편집숍이다. 이곳에서는 아프리카 원두 콜드브루 커피, 각종 액세서리와 의류, 에코백과 파우치, 필통, 머그컵, 엽서 등의 디자인 상품, 그림과 조각품 등의 현지 수입상품을 만날 수 있다. 아프리카스퀘어는 비영리단체 아프리카인사이트(Africa Insight)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아프리카의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스퀘어의 또 다른 매력은 미소가 아름다운 직원 샤니스가 유창한 한국말로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

5 소녀의 마음으로 어르신의 정성을 담다

어느덧 점심시간. 여행에서 식도락을 빼놓을 순 없고, 여기까지 와서 평범한 점심을 먹을 순 없다. 그래서 선택한 곳은 성수동 맛집으로 유명한 '소녀방앗간'! 이 식당은 경상북도 청송군 어르신들이 직접 채취한 산나물과 각종 식재료를 사용하는 청정 한식집이다. 맑고 깨끗한 재료로 만든 식단과 더불어 발효청, 잡곡 등의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소녀방앗간일까? 방앗간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설렘이 소녀의 마음을 닮았다고 해서 소녀방앗간이란다. 메뉴는 단 세 가지. 산나물밥은 고정 메뉴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요일마다 바뀐다. 여행자들은 산나물밥을 선택했다. 오늘의 산나물밥은 '월산댁 뽕잎, 일포댁 취나물, 진보정미소 도정 30일 이내 햅쌀, 방위순 할머니 간장, 장순분 어르신 들깨로 짠 들기름'으로 만들어진다. 향긋한 산나물과 들기름의 고소한 조화, 나물 특유의 아삭한 식감, 게다가 한 톨 한 톨 윤기 흐르는 햅쌀까지... 어르신들의 노고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6 차가운 컨테이너가 러브드림 하우스로

식사 후 여행자들은 다시 서울숲을 지나 '언더스탠드에비뉴(Under Stand Avenue)'에 들렀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아래'를 의미하는 '언더(Under)'와 '일어서다'의 '스탠드(Stand)'를 합친 말로, 롯데면세점이 성동구, 비영리기관인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 CON)와 업무 협약을 맺고 102억 원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만든 신개념 공익문화공간이다.

3층 높이로 쌓은 컨테이너 116개는 유스스탠드(Youth Stand), 하트스탠드(Heart Stand), 맘스탠드(Mom Stand) 등 총 7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고, 각 공간은 청소년과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청년 벤처, 예술가 등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즉,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창조적 공익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1월 2일과 3일 '2017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기업 엑스포'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다채로운 소셜벤처 기업들의 만남의 장 역할 역시 기대되고 있다.

7 디자인으로 아픔을 넘어 희망과 평화를 전하다

아쉽게도 이 날 여행에서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마리몬드(MARYMOND)는 방문하지 못했다. 이유는 리모델링 때문인데 9월 29일에 재오픈을 한다고 하니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가 된다. 마리몬드는 나비라는 뜻의 라틴어 '마리포사(Mariposa)'와 고흐의 명화인 '아몬드 나무'에서 따온 '아몬드(Almond)'의 합성어로, 못다 핀 꽃을 피어나게 하는 나비처럼 존귀함의 날갯짓을 멈추지 말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마리몬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원예심리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꽃을 눌러 만든 미술 작품들을 모티브로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매 시즌 의류, 백팩, 핸드폰 케이스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제품 판매를 통한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연예인 수지와 박보검이 각각 마리몬드 핸드폰 케이스와 티셔츠를 착용해 더욱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여행자와 정착자가 함께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성수동 8

알록달록 컨테이너 앞에서 셀카 삼매경에 빠진 여행자들은 잠시 후 버스를 타고 마지막 여행지인 희락공방으로 향했다.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였지만 햇볕이 따가워 버스를 선택했다. 여행자들은 공방에서 제공해주신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먹으며 여행 소감과 즐거운 수다를 나눴다. 그리고 도자기 체험을 끝으로 성수동 사회적 경제 둘레길 여행을 마쳤다.

고작 반나절의 여행으로 성수동을 다 알 순 없겠지만, 성수동은 참 조용하면서도 활발한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수동에 정착한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도 마을을 닮아 아등바등하지 않는다. 여행자의 짓궂은 질문을 웃어넘길 줄 아는 여유를 지니고 있고, 그저 소박하고 소신 있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곳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늘이 드리고 있다는 것. 성수동 초창기 사회적기업인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는 임대료 문제로 이곳을 떠났고, 서울숲 관리 직원들의 사무실 겸 동네 사랑방으로 통했던 '녹색공유센터'는 민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더 이상 공간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동의 사회적 경제가 더욱더 견고해지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성동구청과 건물주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이 하락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인들이 강한 의지와 자생력으로 이곳 성수동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성수동 사회적 경제 둘레길에 아름다운 상생과 발전이 넘쳐나길 바란다. 왜냐하면 여행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INTERVIEW
With the Travellers

이환태 | 성동구 문화해설사

저는 은퇴 후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어린이들에게 성동구 내의 문화유적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공정무역이 어떤 일인가 궁금해서 참가하게 됐어요. 쭉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더피커' 같은 경우는 과연 이윤이 남을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은경 | 학부모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이번 여행에 참여하게 됐어요. 집이 이 근처라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서울숲을 찾곤 했는데, 골목 구석구석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많다는 건 또 몰랐네요. 빨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지인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희락공방'에서의 도자기 체험이었어요. 여고시절 미술시간도 생각나고, 얼른 제 작품을 집안 좋은 곳에 장식하고 싶어요!

김성민 | 대학원생

요즘 젠트리피케이션과 공정관광을 연구하고 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를 알게 돼 참가했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올 생각도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오늘처럼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을뿐더러 좋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성수동을 막연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공정무역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있는 가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 생산자들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더페어스토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서다희 | 커리어투어 팀장

저희 회사가 청년 진로여행을 콘셉트로 기업탐방 및 상담을 하고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이번 여행에 참가했습니다. 기획자의 입장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던 여행이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평소 아프리카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터라 '아프리카인사이트'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프리카는 가능성이 많은 대륙이잖아요. 앞으로 대륙별, 국가별 문화를 어떻게 융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박채림 | 대학생

저는 공정여행 기획가를 꿈꾸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학교에서는 경영학과 큐레이터학을 전공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정여행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음식점이나 상점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이번 여행에서 해설사님이 "이곳은 주거지이니 주민들을 위해 조금 정숙하자"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보통 여행하면 방문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백영화 | 성동구공정여행사업단 대표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행처럼 아침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친해지고 본인들의 감흥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껴요. 제가 소속된 성동구공정여행사업단은 성동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려야 하잖아요. 바로 그 알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S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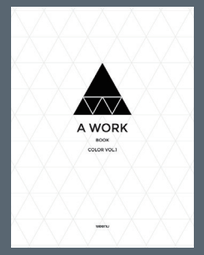
가을과 미술관은 어울린다. 가을은 점점 여물어 예술이 되고, 미술관은 가을풍경에 녹아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미술관을 지면으로 옮겨왔다. 'A WORK'에 수록된 작품들을 감상하노라면 우리 집도 분위기 있는 미술관이 된다. SE갤러리는 미술관 인(in) 우리 집이다.

이피 The Golden Wash-up [Oriental ink on Korean paper, Gold dust, Colored pencils, Watercolors, 200X150cm, 2014]
작가의 작업실은 한때 지하에 있었다. 지하에서 자신만의 시간들이 흘러간다. 지하실은 습기가 많았고, 보이지 않는 습기들이 모여 제습기 물통에 맑은 물이 가득 찼다. 상상력과 사유가 가는 길을 습기 가득한 지하 작업실에서 따라가다 보면, 마치 부처가 기화된 세계인 듯 금빛 습기로 가득한 곳에 머무는 듯한 착란이 엄습한다.

김민영 Village ii [Acrylic on canvas, 72X269cm, 2012]
도시 속 밀집된 공간에 주목했다. 긴 시선으로 펼쳐진 화면 속에, 분주한 가운데 스쳐 지나가 버릴 법한 삶의 모습과 그 흔적을 드러 낸다. 하루의 시작과 끝, 쉼과 기다림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삶의 단위가 되는 곳으로서 가정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고, 가정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나아가 점점 더 큰 세상을 이루는 모습을 표현했다.

우정수 떠도는 그림자들(Ubi Sunt Umbrae)
[Oil on canvas, 72X60cm, 2013]
세상에서의 삶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펼쳐지곤 한다. 삶은 잔잔하다가도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닮았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 속에서 노를 젓는 사공의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그 사공의 모습은 서사 속 주인공들처럼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며 헤매거나, 당찬 포부로 고난을 헤쳐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구민정 Diring [Dolls, mirrors, ready-made, fabric, dimensions variable, 2014]
[디링(Diring)]은 2014년에 열린 구민정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며, 부제는 '동그란 소리가 들리는 이미지'이다. 작가는 자신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들이 생명력을 갖고 공간에 펼쳐지는 순간을 생각하며 작업을 진행한다. 이 이미지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상상을 즐기면서 말이다. 이러한 상상 속 이미지들의 여러 행동과 그에 따르는 다양한 소리들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위누(weenu)'가 발간한 'A WORK(에이워크, BOOK COLOR VOL. 1)'는 현대 아티스트와 대중의 소통을 위한 이미지 북이다.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통해 낯설고 어려운 예술의 세계를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A WORK는 ARTIST의 A와, ARTWORK의 WORK를 조합한 이름이며, 로고는 A를 기반으로 루브르 박물관의 삼각형상과 그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주식회사 위누는 수많은 예술과 이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2007년 설립되어 2010년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았다. 다양한 예술가가 참여하는 페스티벌과 교육을 통해 대중문화로 획일화된 세상이 아닌 보다 다채롭고 크리에이티브 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주)위누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성수동1가 22-8) 헤이그라운드 203 02-782-0514 weenu.com

사랑과 섬김 나눔의 마음으로 사회적기업의 내일을 맞이하다

교리는 달라도 믿음은 같다.
종교는 공동선 추구, 자비와 나눔, 이웃사랑 실천으로 하나 되고
사회적기업은 하나 된 종교와 손을 맞잡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다.
사회적기업과 종교계는 진정한 이웃사랑과 나눔실천으로
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 행복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종교를 만나고,
종교는 사회적기업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사랑을 나누다'
공동선의 가톨릭 & 가톨릭 화목복지협동조합
자비와 나눔의 불교 & (사)자연음식문화원
말씀 실천의 기독교 & 장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종교를 만나고, 종교는 사회적기업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사랑을 나누다'

종교와 사회적기업의 만남

한국의 3대 종교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안정적인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교계는 각자의 인적 · 물적 자원을 발굴해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 및 지원에 힘쓰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각 종단 내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식확산과 판로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자립을 위해 섬김을 다하고 있는 가톨릭, 불교, 기독교가 얼마 전 3대 종교 공동행사를 열고 사회적기업과의 연대를 더욱 더 공고히 다졌다. 이 행사와 더불어 그간 종교계와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화합의 장을 이루어왔는지 소개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10주년 기념 3대종교 공동행사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실천」 성료

지난 9월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3대종교 공동행사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실천'이 종교계 및 정 · 관계 주요 인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주최하고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했다.

3대종교 공동행사는 종교지도자의 연대와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단 내 성직자 및 신도들의 관심을 촉구해 종교계 자원과 사회적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2015년 명동대성당에서 가톨릭 주관으로 처음 시작해 2016년에는 불교 조계종 주관 행사로, 그리고 올해는 기독교 주관으로 치러졌다. 이 날 행사에서는 각종 포상 및 결연식, 그리고 기념식 직후 부스 전시행사를 통해 우수기업 생산품을 만날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화합의 장

아나운서 정은아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권오륜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어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의 개회인사를 비롯해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초격 스님 대독),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박성희 국장 대독)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후 종교지도자상 시상식에서 가톨릭계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가톨릭 화목복지협동조합', 불교계는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와 '(사)자연음식문화원', 기독교계는 '거룩한빛광성교회'와 '장터사회적협동조합'이 수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가톨릭 '샬트로 성바오로 수녀회', 불교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인교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날의 마지막 순서이자 하이라이트는 기독교 주요 교단들과 사회적 경제 단체들의 1대1 결연식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터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구세군본영–희망푸드협동조합,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주식회사트립티, 기독교대한감리회–서로살림농촌도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주)도농살림 등 총 5쌍의 결연이 맺어졌고, 향후 교단들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위해 자원 연계와 판로개척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2부 행사 및 3대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생산품의 전시행사가 진행됐다.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 3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종교계가 뜻과 힘과 능력을 모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이 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의 격려가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고, 온 사회로 뻗어나가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개회인사 中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이번 공동행사를 치르며 우리 종교계가 사회적기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가 튼튼하게 정착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자리 역시 사회적 경제의 이념이 널리 보급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놓는 자리라고 확신한다." 축사 中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초격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대독)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회적기업가, 정책과 행정지원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동체 파괴와 차별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의 믿음이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노고가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소중한 인연이기를 기원한다." 축사 中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박성희 국장 대독)
"혼자서는 새 길을 만들기 어렵지만 나눔을 통해 여럿이 함께 가면 가능하다. 우리 국민의 강한 위기 극복 DNA와 종교계의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따뜻한 나눔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축사 中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공동선(共同善) 실현하는 가톨릭

한국가톨릭은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 등을 뜻하는 카리타스(Caritas)의 실천을 위해
2012년 3월 가톨릭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안에
카리타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왼쪽부터 가톨릭 화목복지협동조합 허명옥 이사장, 유경촌 주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최근주 과장

아카데미 및 교육	바자회 · 판촉전	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기업 운영	언론보도
62 회	26 회	651 회	83 개	415 건

2013년부터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세상학교'를 열어 교구 내 본당 신자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넓혔고, 바자회와 판촉전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착한소비 촉진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3대 종교행사에서 종교지도자상을 수상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서울 내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약 270여 개의 사회복지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지역 내 본당과 연대하여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 화목복지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직 · 간접적으로 간여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공로상을 수상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1888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수녀원으로 2001년 쿠키 생산과 장애인 직업재활을 하는 위캔쿠키를 설립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녀회에서 수녀들을 파견해 위캔쿠키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동선'은 개인이 경제주체로 바로 서는 것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기업가의 소명을 제시한 바 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은 모든 경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관심사이며, 기업가들은 이 세상의 재화를 증대시키고 모든 이가 이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참으로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시절, 경제 불황으로 양산된 노숙자들이 폐지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도왔다. 어려운 이웃에게 동정의 손길을 보내는 것은 단편적인 도움일 뿐이지만 그들이 사회 안에서 경제주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일은 진정한 '공동선'의 실현이다. 마찬가지로 한국가톨릭 역시 사회적 경제의 공동선 증진을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는 가톨릭 경제공동체
가톨릭 화목복지협동조합

촛불 하나의 기적

가톨릭 화목복지협동조합(이하 화목복지)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정성환 회장신부는 복지회 산하 개별 장애인 보호작업장들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공동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가톨릭 이념으로 설립된, 장애인과 기업 상생의 좋은 모델인 스페인의 100년 기업 '세라스로우라 양초회사'를 벤치마킹해 양초 사업을 도입했다.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화목복지의 전신인 '가톨릭화목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사회적 경제 연구 및 다양한 사업 가능성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순차적으로 보호작업장들이 봉헌컵초 사업을 도입하면서 근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년 화목복지가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화목복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자원봉사자 등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공감하는 다양한 주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한 보기 드문 사례가 됐다. 현재 5개소의 보호작업장에서 220명의 장애인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이자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다.

화목복지캔들, 착한 소비를 밝히다

화목복지는 석유화합물인 파라핀왁스 대신 100% 식물성 원료인 팜 왁스를 이용해 '화목복지캔들' 봉헌컵초를 생산하고 있다. 물론 조합원 시설들의 여건에 맞게 황사 및 의료용 마스크, 제과제빵, 소이 캔들, 디퓨저, EM발효액 · EM비누, DM발송, 임가공 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영역을 운영중이다. 또,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 내에 실무자 연구모임을 개설하여 꾸준하게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화목복지는 '화목복지캔들'이 가톨릭교회 내에서 착한 소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거래처를 늘리고 조합원을 유치하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화목으로 더 불어나는 공동체

화목은 라틴어 'conco'rdia(콩코르디아)'의 '화목, 단합, 한마음 한뜻'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목의 의미처럼 다양성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는 가톨릭 고유의 문화가 바로 화목복지 성장의 커다란 원동력이다. 또한 카리타스(caritas) 정신에 따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에 뿌리와 지향점을 두고, '더불어 사는 경제공동체, 더 불어나는 행복공동체'를 향해 모든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게 전진하고 있다.

‘자비와 나눔’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는 불교

한국불교는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연음식문화원 유정희 대표, 초격 스님, 송광사 신해 스님

아카데미 및 교육	바자회 · 판촉전	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기업 운영	언론보도
78 회	21 회	532 회	55 개	774 건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네트워크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사람과사회적경제’라는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사람과사회적경제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시 등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을 같이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과 연계해 스님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을 진행,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찰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며 불교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불교는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불교적 사회적 경제 모델을 개발 · 육성하고, 불교가 간직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를 확충해 가고 있다.

3대 종교행사에서 종교지도자상을 수상한 대한불교조계종 완주 송광사는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에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자연음식문화원과 함께 사찰음식을 매개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교계의 대표적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공로상을 수상한 금강정사는 2011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도시락 사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사찰의 정기법회 및 행사를 개최해 사회적협동조합원의 판로지원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중생을 구하는 길

경제적 이윤 추구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부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인간의 존엄과 올바른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모습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현상이다. 즉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보살행(菩薩行)이자 중생을 구하는 길이다. 한국불교는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동체 파괴와 차별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이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다.

공생공존의 지혜로 참다운 음식문화 알리다
(사)자연음식문화원

먹거리 통한 맛있는 봉사와 나눔

자연음식문화원은 사찰음식을 기반으로 한 생명평화정신을 살리는 먹거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생명평화정신이요, 이 정신을 먹거리로 구현한 것이 바로 사찰음식이자 자연음식이다.

자연음식문화원은 다양한 요리 강좌를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짤막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공헌사업을 소개하면, 다문화여성을 위한 전통음식 강좌와 지역 내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음식 및 절기음식 강좌가 있다. 또, 장애학생들이 요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먹거리를 통한 봉사와 나눔으로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벗과 함께하는 지역 음식문화 전파

자연음식문화원은 완주 송광사와 함께 각종 지역축제에서 자연음식 홍보 부스와 사찰음식 체험 부스, 발우 공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송광사가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축제, 인문학축제인 나비채 등의 행사에 자연음식문화원의 음식을 전시해 오고 있다. 또 다른 지역 내 사찰인 금선암과도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채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전국 대학생 채식요리 경연대회’에 함께 참여하는 등 지역공동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전주 연꽃축제, 비빔밥축제, 발효식품 엑스포 등에 건강한 식문화 전파를 위한 전시와 체험부스, 캠페인 행사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

향후 자연음식문화원과 송광사는 지역에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체험관이 설립되고 나면 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식문화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아울러 음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비 실천 행사의 꾸준한 진행은 물론, 공생공존의 지혜로 사람과 동물, 지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생명평화정신 실현

자연음식문화원은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도시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도시락 사업은 식품 첨가물을 최소화한 ‘집밥의 도시락화’를 표방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외에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 중이다. 이렇듯 자연음식문화원은 앞으로도 자연사찰음식을 바탕으로 한 감사와 배려의 먹거리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자 한다.

말씀의 실천으로 사회적 경제 미션 수행하는 기독교

한국기독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사회적 경제를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거룩한빛광성교회 김옥현 장로, 김영주 총무, 장터사회적협동조합 이민정 팀장

아카데미 및 교육	바자회 · 판촉전	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기업 운영	언론보도
212 회	34 회	415 회	99 개	418 건

'1교회 1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결연'을 지향하고, 기독교계에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매년 100여 건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세미나를 수백여 차례 열어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살리고자 교회와 기업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녹색가게나 재활용센터와 같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교회 내외에 카페와 문화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간혹 지역주민과 더불어 독립된 크고 작은 기업들을 창업하는 사례도 있다.

종교지도자상을 수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거룩한빛광성교회는 1997년 창립이래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2013년도에는 중증 장애인, 탈북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터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공동으로 협력하며 정부 지원 중심이 아닌 자립적 사업운영 시스템과 직업훈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기업의 우수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공로상을 수상한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인교회는 IMF 시기부터 지금까지 노숙인들에게 쉼터, 고용지원센터 등을 제공해 그들의 취업과 자활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01년에는 노숙인과 함께 사회적기업 계양구재활용센터를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사회적기업 도농살림 등 2개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동

이러한 여러 사회적 경제 활동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바른 신앙의 모범에 따른 일로, 앞으로도 한국기독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명이다.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기초하고 있다(마태복음 22장 37~38). 그래서 한국기독교는 사회의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가맹 교단과 더불어 정책협의회와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랑으로 약한 자 섬기는 실천의 공동체
장터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해

장터사회적협동조합(이하 장터협동)은 2013년 11월 중증 장애인, 탈북민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유통사업, 제과제빵 제조업, 음료사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4가지 사업 분야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후 맞춤 훈련과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터협동의 역사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발달장애인 성인 6명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직업훈련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총 25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복지 일자리 형태의 직업훈련이 진행됐다.

그 후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발달장애인 7명에게 맞춤훈련을 실시했고 전원 채용이 이루어졌다. 광성문화센터 음료사업부에서도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채용했다.

탈북민의 성공적 자립 지원

탈북민 거주지가 형성돼 있는 파주시에 위치한 장터협동은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8명(1급 6명)과 청각장애인 1명(1급), 뇌병변장애인 1명 등 총 13명의 취약계층과 3명의 사회복지사, 일반직원 2명으로 1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추후 사업의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소중한 직장이자 가족

장터협동은 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외하고는 지역사회로의 편입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중증 장애인, 특히 1급 발달장애인에게 가능한 직무를 개발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장애인 고용기업들은 단순 일자리 제공에만 그치고 있으나, 장터협동은 장애인의 부모 사후에도 그들의 안전한 자립생활이 가능한 생활공동체 조직을 목표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재생 사례와 그 함의

임팩트스퀘어 대표 **도현명**

최근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방법이나 모양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도시재생은 결국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 및 사회 구조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부흥과 회복을 만드는 일이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멋진 건물이 들어서는 일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다방면의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현대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가 자본주의, 국제화와 더불어 도시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도시와 그 인근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회 발전의 길이다. 그렇다면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필자가 창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갔었다. 그때 파트너였던 임팩트 허브 샌프란시스코(Impact Hub San Francisco)를 방문하였는데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중심인 파웰역(Powell Station)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빌딩(San Francisco Chronicle Building)에 있었다. 해당 빌딩은 역사적인 건물이고 그 건물 내부에는 에너지가 넘쳤지만, 바로 옆 몇 십 미터만 가더라도 눈으로 보기에도 낙후된 지역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임팩트 허브 샌프란시스코는 관련 지역을 재생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5M 프로젝트를 소개해줬다. 샌프란시스코의 5M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 중심가 바로 옆에 있는 낙후 지역을 예술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조직과의 협업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개발 투자자인 포레스트(Forest City)의 주도 아래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 물론 테크숍(TechShop), 임팩트 허브(Impact Hub), 소마 센트럴(SoMa Central), 에스에프메이드(SFMade), 인터섹션포아츠(Intersection for the Arts), 오프더그리드(Off the Grid), 소캡(SOCAP), 인디고고(Indiegogo) 등이 협업하였다. 이들 조직은 단순히 그 스스로가 좋은 조직이 아니라 예술가, 제작자, 투자자, 벤처기업가, 사회혁신가, 기술자들의 네트워크 혹은 플랫폼을 자처하는 조직들이다. 때문에 수천 이상의 새로운 유동인구가 창출되고 그들의 문화와 활동력이 지역을 바꾸도록 설계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역사적인 건물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빌딩 등을 파괴하지 않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보강하여 잘 살리고,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하여 이런 문화를 바탕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추진을 했음에도 물리적인 건물보다 실제 그 지역에 성립하게 되는 공동체와 그 문화적 구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투자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추진되어 역시나 지금도 진행 중인 덴마크의 오르후스(Aarhus) 지역 재생 프로젝트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꾀했다. 덴마크 제2의 도시이자 항구도시인 이 지역의 중심가는 여느 유럽의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조금만 더 외곽으로 벗어나 보면 과거에는 활성화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그 활기를 잃어버린 지역이 곳곳에 있다. 오르후스 정부는 그 낙후 부문을 어떻게 과거와의 연결성을 살리면서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이때 지역 비영리조직인 GIVISME는 건축디자인 조직인 AART와 협업하여 오래된 기차선로를 중심으로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선로를 폐기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오르후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독특한 상징성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빌딩 / https://nextcity.org/daily/entry/san-francisco-new-affordable-housing-policy-5m-development

이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GIVISME는 그 창립자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버닝맨(Burning Man) 축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 것과 같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비영리조직이다. 이들은 선로 위에 기차의 차량을 모티브로 하는 호텔, 카페, 공연장 등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축제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큰 특징은 컨셉 기획과 해석은 GIVISME가,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AART가 진행했지만 실제 구현하는 작업과 축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상당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양 조직의 철학적 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만들고 실현하는 방식의 지역재생은 진짜 지역성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력을 받게 된다.

위의 두 사례는 물론 다양한 성공적인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다. 물론 예산과 역량이나 결과적인 심미성 등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어 실제적인 지역성의 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자 간의 협력과 비물리적인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필연적이다.

지역재생이라는 활동이 오래된 것을 낙후라는 단어 하나로 폄훼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하여 으리으리한 마천루로 대체하겠다는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혹은 반대로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건물이나 사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어버리는 필패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할 것이다.

오르후스의 팝트레인 캐리지(Pop Tra in Carriages) / www.aart.dk

樂

음악 듣는 낙(樂)에 산다면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의 음악(樂)에 빠져보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광명심포니)는 지난 2002년 문화예술 불모지였던 광명 지역에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넓히고, 젊은 연주자들에게 연주 기회의 터전을 제공해 수준급 연주자로 성장시키고자 설립된 민간 오케스트라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무료함에 지쳐있는 주부들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모닝 클래식', 광명시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상임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교과서 음악회'를 진행하며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10월 예정공연

10월 9일(월) 오후 3시
하안5단지 아파트 야외연주

10월 10일(화) 오후 7시
철산도덕파크타운 101010연주

10월 18일(수) 오후 7시
엑슨모빌 기업초청연주

10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제81회 정기연주회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

음악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광명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줄이고 누구나 문화를 동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농산어촌 순회연주'를 비롯해, 복지시설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 사회적기업 방문 음악회 및 직원 클래식 강좌 등을 개최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광명심포니는 특히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및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음악교육'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고, 뮤지컬 · 합창 · 브라스밴드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 학교 뮤직스쿨'을 경기도 교육청과 협업한 바 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광명심포니의 가장 큰 매력은 정열적인 활동이다. 거의 매주 열리는 연주회로 스케줄표가 빡빡하고, 정기연주회도 지금까지 무려 80회나 진행했다. 10월에도 다양한 연주회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아니, 찾아갈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10월 10일 철산도덕파크타운에서 열리는 '101010연주회'와 10월 26일에 있을 '제81회 정기연주회'가 기대된다.

101010연주회는 광명시에서 매월 10일, 오후 10시, 10분간 소등하는 프로젝트를 축하하는 공연이고, 제81회 정기연주회의 경우는 올해로 광명심포니 창단 15주년을 맞이한 터라 더욱 의미가 깊다. 깊어가는 이 가을, 광명시에 가면 음악의 광명을 찾을 수 있다.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철산동) t.02-2680-6063 www.gsymphony.org

모든 아이는 책 읽을 권리가 있다

행복한아침독서는 1999년 비영리 민간 어린이 도서관 설립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즐거운 책 읽기'를 위한 독서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모든 교육현장의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독서로 시작하는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했고, 2007년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를 거쳐 2010년 우리나라 유일의 독서 운동 및 도서관 전문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고, 독서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라는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행복한아침독서는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을 보내는 '희망의 도서관, 희망의 책나눔'사업, '독서교육 및 독서캠프'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2월 1일, 고양시 대화동에 직영 서점 '행복한책방'을 개점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어른들은 책 읽을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독서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터주는 소중한 습관이다. 그러나 어른들이라고 해서 책을 놓아선 안 된다. 독서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인생설계를 위한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독서가 소개하는 '아침독서 운동의 4원칙'은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매우 유용하다.

경기 파주시 회동길 455-2 (문발동) t.031-955-7567 www.morningreading.org

아침독서 운동의 4원칙

1. **모두 읽어요 :** 모두 읽는다는 것은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과 함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를 의미한다. 함께하는 그 자체로 친근감이 쌓이고 지혜 역시 더해진다.
2. **날마다 읽어요 :** 습관은 무섭다. 무엇이든 꾸준히 계속하면 힘이 된다. 지속적인 하루 10분의 독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책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 독서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3.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 일단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사는 넓어질 것이고, 책 선택의 기준은 깊어질 것이다.
4. **그냥 읽기만 해요 :** 독후감, 토론 등 일체의 독후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읽는 즐거움에 빠져야 한다. 부담 없이 독서해야 완벽하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다.

결국 10분이 평생을 좌우한다

행복한아침독서가 전개한 아침독서 10분 운동은 교육부, 문화체육부, 각 시도교육청의 대표 독서교육으로 정착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2015년 아침독서 10주년 독서교육 사례대회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교육부장관상 및 7개 시도교육감상을 수여한 바 있다. 아침독서 운동의 효과는 수치로 명확히 나타난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 실태조사 결과, '아침독서가 독서습관에 도움된다'는 의견이 2010년 45.3%에서 2015년 57.6%로 껑충 뛰었고, 아침독서를 실시하는 학생의 연간 독서량(44.8권)이 미실시 학교 학생의 독서량(13.5권)을 압도했다. 자~ 이 가을, 계절을 핑계로 아침독서의 효과를 핑계로 책의 나라로 훌쩍 떠나보자.

書

행복한아침독서는
행복한 가을 독서를 싣고 온다

착한 쇼핑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e-store 36.5는 365일 언제나 꿀잼!

환경, 건강, 보람, 재미까지 챙기는 실속만점 e-store 36.5에서
가을 소풍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득템했다.

www.e-store365.or.kr

VIP도시락

18,000원
(유)다솜도시락 www.dasomislove.com

소풍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건 도시락이다. 맘 같아선 5단 찬합을 꽉꽉 채워 가면 좋으련만 바쁜 현대인에겐 그저 사치일 뿐. 그렇다고 편의점 도시락을 챙겨가기엔 뭔가 아쉽다. 바로 이럴 때 다솜도시락에 SOS를 요청해 보자. 다솜은 도시락 전문 배달 기업으로, 하루 전에 전화 예약만 하면 시간에 맞춰 배달 받을 수 있다. 다솜은 대량생산 도시락 업체가 아니다. 싱싱한 재료를 하루 전 구매해 당일 조리 및 배송하는 엄마표 집밥 도시락이다. 메뉴는 가장 비싼 VIP도시락부터 가장 저렴한 다솜스페셜(6,000원)까지 다양하며, VIP도시락은 전복초, 돼지목살구이, 생선구이, 인삼밥 등으로 구성돼 있어 나를 소풍날 VIP로 만들어 준다. 게다가 다솜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니, 이 정도면 배도 든든,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소풍, 왠지 느낌이 좋다!

수제순쌀쿠키3종세트

15,000원
(주)쿠키라인 www.cookieline.com

식사 후 디저트는 당연한 수순. 소풍에 품격을 더하고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쿠키를 추천한다. 쌀베이커리 전문기업 쿠키라인은 100% 우리 쌀을 사용해 제과 · 제빵을 하고 있는 업체로, 웰빙 트렌드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한 쿠키를 생산하고 있다. 종류도 다양해서 순쌀, 초코, 모카, 마블, 셔링요구르트, 셔링치즈, 셔링초코 등을 맛볼 수 있고, 3종 세트의 경우 이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쿠키라인의 주원료 쌀은 '하이아미' 품종으로 고3쌀이라고 불릴 만큼 두뇌 발달에 효능이 있고,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항산화, 항암 효능이 뛰어난 폴리페놀, 감미오리지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쿠키라인의 제품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수원점)을 비롯해 농협하나로클럽,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쌀빵체험카페 등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수제순쌀쿠키로 건강하고 맛있는 소풍을 연출해 보자.

제주귤피차

5,200원
영농조합법인 제주다(착한제주) www.kindjeju.com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당신, 소풍의 화룡점정이다. 경치 좋은 소풍지에서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물로 우려내는 차 한 잔의 운치는 제아무리 고급 카페라도 흉내 낼 수 없다. 여기에 제주의 정취를 더한다면 금상첨화. 영농조합법인 제주다는 야생에서 자란 깨끗한 식물과 무농약으로 재배한 친환경 원재료를 가마솥에서 정성으로 볶아 익혀 만든 전통 수제차를 생산하고 있다. 제주귤피차는 제주 친환경인증농가에서 재배된 귤피를 건조, 숙성, 볶음 가공을 거쳐 친환경 삼각티백에 넣은 후 위생적인 외피 포장으로 마무리된 제품이다. 약 1~2분간 우려내 곧바로 마실 수 있고, 1티백당 2~3회 우릴 수 있어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혹시 티백 형태가 불편하다면 제주다의 홈페이지를 통해 페트 용기에 담긴 다양한 제주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가을 소풍 레시피, 준비 끝~!

아웃도어양말

2켤레 1세트 8,800원
행복플러스 www.coopersocks.com

진정한 패셔니스타라면 "오늘 뭐 입지?" 대신 "오늘 뭐 신지?"를 외친다.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기 때문이다. 활동량이 제법 많은 소풍을 대비해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아웃도어양말을 준비해보자.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첨단 고기능 소재를 사용해 보행 시 발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컨디션 유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제품 전체에 사용된 기능성 에어로쿨(Aero-Cool) 원사는 땀 흡수 및 배출을 돕기 때문에 발에 땀이 많아 발냄새가 심한 분들에게 최적화된 제품이다. 이 밖에도 걸을 때 힘이 실리는 발바닥 부분을 2중 파일쿠션으로, 발 앞꿈치와 뒤꿈치는 3중 파일쿠션으로 집중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발목 뒷부위에 내구성 높은 삼중파일조직을 처리해 아킬레스건까지 보호해준다. 이쯤 되면 이번 소풍의 보디가드는 행복플러스 아웃도어양말이다.

구급키트 베이직

16,500원
더사랑 www.thesarang.co.kr

아뿔싸! 예기치 않은 부상은 소풍의 흥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 연인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면 구급키트로 재빠른 대응과 치료를 하면 된다. 더사랑 구급키트 베이직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가벼운 산행과 여행, 레저 등 야외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본 구급키트로, 허리띠나 가방에 탈부착 가능한 파우치 형태여서 휴대가 간편하다. 각종 사이즈의 밴드, 멸균거즈, 알코올 솜, 소형 가위 등 총 13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돼 있어 심각하지 않은 상처 정도는 응급 처치할 수 있다. 한편,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더사랑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행복한 일터의 기업으로, 지적장애인과 고령자가 2인 1조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행복한 일터에서 만드는 사랑이 가득 담긴 제품, 더사랑의 구급키트로 소풍 날 안전을 지켜보자.

라벤더 천연화장품

토너 19,000원 | 에멀전 20,500원 |
에센스, 크림 각 35,000원
(주)자작나눔 shop.jajac.org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요즘엔 가을에도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즐거운 소풍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자외선에 지친 피부를 천연화장품으로 달래 보는 건 어떨까. 자작나눔의 라벤더 천연화장품은 이름 그대로 천연성분 100%로 꽉 채워진 제품이다. 현행법상 단 1%의 천연재료만 넣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하니, 100% 천연화장품은 이 얼마나 귀한가. 자작나눔은 화학성분이 주는 단기간의 효과보다 전성분 천연재료를 사용해 피부 스스로 생기를 가질 수 있는 자생력에 더 집중하고 있다. 또 천연화장품은 정제수 대신 플로럴워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피부 개선을 경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e-store 36.5의 제품과 함께 한 당신의 가을 소풍은? 대단히 성공적!

사람과 기업, 사회적 경제의 따스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곳

Store 36.5 은평점

의도하지 않아도, 기를 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있다.
오며 가며 안부를 전하기 위해, 굳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수다를 늘어놓기 위해
들를 수 있는 가게가 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체온을 나누는 곳,
따뜻함과 친근함으로 착한모객을 하는 스토어 36.5 은평점은
녹번역 핫플레이스 아니, 온(溫)플레이스다.

은평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제품과 공정무역 제품

은평점 매장 전경 모습

사진촬영이 부끄럽다는 이민규 바리스타의 수줍은 한 컷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직원들의 티타임 현장

Store 36.5 Eunpyeong store

은평구 사회적 경제의 믿음직한 버팀목

녹번역 4번 출구 앞 입지 좋은 곳에 자리한 은평점은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매장이기도 하다.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파발로(Pavalo)'의 전시 판매장이고, 은평구 소재 사회적기업들의 든든한 판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천연화장품과 천연비누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누야하우스', 수제화 소상공인협동조합 '토투(toetoo)', 인테리어 소품 및 선물상품을 만드는 '한국아트공예협동조합' 등은 모두 은평구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궁금하다면 1층 찍고 3층으로 고고!

은평점이 위치한 곳은 원래 은평소방서 건물이었는데,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건물 절반은 녹번119안전센터가 쓰고 나머지 절반은 리모델링을 거쳐 공익타운으로 거듭났다. 1층에는 은평점, 2층에는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 3층에는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은평상상허브)가 들어섰다. 은평상상허브는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조직과 마을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기업들은 서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센터를 통해 다채로운 지원을 받고 있다. 트래블러스맵,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에코맘협동조합, 고은빛협동조합 등이 입주해 있는 은평상상허브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므로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다면 한번쯤 방문해도 좋을 듯 싶다.

착한 소비 좀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랑방

은평점의 주고객층은 중장년층이다. 처음엔 품질 좋은 생필품을 파는 가게인줄 알고 찾아왔다가도 일단 매장의 정체(?)를 알게 되면 단골로 발전하는 고객들이 꽤 많단다. 생필품들이 고르게 잘 팔리고 있고, 특히 매장 내에 있는 카페에 고객들의 줄이 끊이지 않는다. 개소부터 줄곧 카페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이민규 바리스타의 솜씨와 친절이 은평점의 분위기를 더욱 사랑스러운 사랑방으로 연출하고 있다.

사방팔방에 친구들이 있어 든든해요~

조 은 예 은평사회적경제협의회 36.5 사업단장

은평점은 오는 11월에 개소 4주년을 맞는다. 매 기념일마다 행사를 열어왔던 만큼 올해도 4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소 기념일에는 항상 매장 앞을 장터처럼 꾸미고 다양한 물건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매출도 올리고, 36.5라는 브랜드를 홍보할 수도 있죠. 사실 이 주변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어려움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진흥원을 비롯해 은평구청, 위층 사회적 경제 동료기업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스토어36.5 은평점
전화번호 : 02-384-3605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은평소방서녹번119안전센터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 9시, 일요일 휴무

NEWS

1 사회적기업 홍보 카탈로그 제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유형별 · 지역별로 정리한 공공구매 카탈로그와 추석 대비 명절 선물세트 카탈로그를 제작했다. 공공구매 카탈로그는 총 11권으로 기존 1권으로 제작되던 것에 비해 부피가 대폭 줄어든 대신 상품 · 공연서비스 · 교육서비스 · 지역별 서비스를 주제로 나눠져 있어 원하는 사회적기업의 품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카탈로그는 지역별 공공구매 전문상담기관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되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와 사회적기업 상품소개사이트(www.e-store365.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소셜벤처 멘토링 캠프 시행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의 전국대회 진출팀을 대상으로 멘토링 캠프가 실시됐다. 이번 멘토링 캠프는 진흥원 주관 아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청소년 및 대학생 부문(9.23~24)과 창업 및 글로벌 부문(9.26~27)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 맞게 스토리맵핑과 피어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모의 발표대회와 시상, 평가를 통해 미리 본선 경연대회의 경험을 준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우수 사회적기업 추석 세트 특별전 개최

진흥원과 현대백화점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선보이는 특별판매전을 개최했다. 특별전은 현대백화점 본점(압구정점)을 비롯하여 총 7개 지점에서 추진되었으며, 진흥원의 '2017 사회적기업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이템 중 명절과 관련된 상품들로 구성됐다. 9월 15일(금)부터 10월 3일(화)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전을 통해 한라산 성암영귤농원의 성암영귤차 세트, 황수연 전통식품의 장세트, 사임당푸드의 한과세트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상품의 판매와 홍보가 이루어졌다.

4 진흥원·KT, '소셜 체인지 메이커' 육성사업 전달식 개최

진흥원과 KT희망나눔재단은 지난 9월 21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소셜 체인지 메이커 공모전'에 선발된 기업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소셜 체인지 메이커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기획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기업 당 1,5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에는 발달장애인 고용 모델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웍스, 여행객을 위한 친환경ICT 의류 공유와 렌탈 서비스를 수행하는 ㈜스마일시스템 등 7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송남철 판로지원 본부장은 "이번 KT 그룹의 지원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기업과 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5 지역 사회 내 사회공헌 '함께하는 사랑나눔'

지난 9월 22일 진흥원은 성남 가나안 근로복지관(인증 사회적기업)에 방문하여 사회적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쌀과 라면 등의 기부물품을 기증하였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 노사가 사회적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쇼핑백 조립 및 포장 등 제작 공정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 일손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큰 힘이 되었다. 이 외에도 추석을 맞아 전직원들이 참여한 물품 나눔 행사를 통해 책, 의류 등 200여 점의 중고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 분당이매점에 기증했다. 진흥원은 지난 2011년 설립 이래 지역 사회 내 사회적기업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태현 교육관리팀장은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 사회 내 사회적기업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도 사회적기업인가요?

최근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 책임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은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 가운데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거나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요?

양극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복지수요 증가로 국가 재정의 한계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사회 운영 시스템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진흥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열린알림방에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가 올라가있으니 자주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 기관이 있으니 해당 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진흥원 블로그 등 온라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게시되어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상품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흥원은 사회적기업들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품 소개 사이트 : www.estore365.co.kr
• 오프라인 판매장 : store 36.5(전국 56개 매장)
판매장 현황은 e-store 36.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개별 기업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등으로도 구매 방법을 확인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통해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 사회적기업 정보-사회적기업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6년 9월까지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16년 사회적기업 개요집이 홈페이지 문서자료실-도서 항목에 게시되어있습니다.('17년 연말 갱신 예정)

사회적기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기업 가치 확산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사회적기업 가치확산-자율경영공시코너를 이용하시면 기업의 주요 매출 및 고용현황뿐만 아니라 지배 구조, 재무제표, 사업 계획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기업 자율)

또한 전체 사회적기업의 주요 경영 성과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진흥원은 연 1회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조하시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 사회적 성과에 대한 주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흥원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는 다양한 도서 자료들이 게시되어있습니다.(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 사례집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진흥원에서는 2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통해 사회적기업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kosea@ikosea.or.kr로 신청).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 blog.naver.com/se365company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ocial365
인스타그램 : @kosea_365
트위터 : @social_365

노인인권문제 속에 녹인 따뜻한 가족애 '봉구는 배달 중'

노인을 소재로 한 영화는 꽤 많다. 우리 영화 〈집으로〉, 〈워낭소리〉, 〈죽어도 좋아〉, 〈그대를 사랑합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장수상회〉, 그리고 미국 영화 〈버킷 리스트〉 등은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다양한 주제의식을 선보였다. 그런데 〈봉구는 배달 중〉은 동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독립영화다. 거칠면서도 결코 어둡지 않게, 날카로우면서도 유머를 섞어 이 시대의 노인문제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신아가, 이상철 감독이 공동 연출한 〈봉구는 배달 중〉은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열 번째로 기획 · 제작한 옴니버스영화 〈어떤 시선〉에 〈두한에게〉, 〈얼음강〉과 함께 수록된 작품으로 노인인권문제를 다뤘다.

영화는 실버택배기사인 71세의 봉구가 길 잃은 6세 행운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서 졸지에 유괴범이 된다는 설정으로 내용을 풀어간다. 사실 이 작품은 영화의 제목처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 늙고 지친 독거노인이 택배기사로 일하는 모습을 비극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을 하며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봉구가 행운이의 유괴범으로 오해되는 과정도 그렇다. 단지 봉구가 일반적인 노인의 비주얼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괴범이 되는 장면은 이 사회가 낯선 이들에게 어떤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쨌든 실버택배기사 봉구의 '행운 배달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 하루의 소동을 통해 해결했으니 말이다. 봉구는 행운에게 아빠를 배달해 주었고, 행운이는 봉구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시선을 던지며.

P.S. 봉구는 비록 행운이를 배달하면서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노인들을 고용하는 실버택배회사는 사회적 경제의 시선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기업이다. 이 시대에 노인을 위한 직장은 없다지만 사회적 생태계 내에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사회적기업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봉구의 시선

나는 70대 독거노인 봉구다. 실버택배기사로 일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나이 탓인지 요즘 갑자기 관절이 나빠져 계단도 잘 오르지 못하겠고, 대상포진까지 발병해 건강까지 악화됐다. 미국으로 이민 간 외동딸은 몇 년 째 연락조차 없다. 내가 손자 지미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면서... 무심한 것. 얼마 전에는 핸드폰 대리점 직원에게 속아 비싼 돈 주고 스마트폰을 덜컥 사게 됐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나는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하지만, 나 같은 노인에게 세상은 점점 가혹해질 뿐이다. 내 유일한 낙은 로또. 꼭 1등에 당첨돼 내 발로 미국으로 날아가 딸과 손자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매일 아침, 꿈에서 본 번호들을 팔뚝에 꾹꾹 눌러 적는다. 이번 주에는 꼭 당첨되리라는 희망과 함께. 그러던 어느 날, 복권가게에서 번호를 적고 있는데 마지막 번호가 지워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다. 바로 그때 창밖으로 꼬마 아이의 티셔츠에 새겨진 숫자 37이 눈에 들어온다. 맞다! 꿈에서 본 마지막 숫자도 37이었다. 기쁜 마음에 번호를 완성하고 회사에 복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아까 그 37번 티셔츠의 아이가 홀로 남겨진 채 서있는 게 아닌가. 어린이집 버스가 아이를 태우지 않고 떠나버린 거다. 그러나 나는 이번 버스를 꼭 타야만 한다. 버스 5번

환승에 물건 4개 배달이라는 회사의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버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버스가 왔다. 결론은 환승 실패. 손자 또래로 보이는 녀석을 두고 그냥 가버리기에는 난 너무 착하다. 하지만 실수였을까. 녀석을 어린이집에 배달하기 위한 여정은 내 인생보다 더 험난했다. 녀석을 버스에 두고 나 혼자 내리질 않나, 꾸역꾸역 버스에 다시 탔더니만 녀석은 이미 내리고 없질 않나. 급기야 유괴범으로 몰려 뉴스에 내 신상이 공개되기까지 한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 겨우 오해를 풀고 녀석을 집에 돌려보내 줬다. 고된 하루였다. 그렇지만 녀석과 함께 한 하루가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 녀석은 병원에서 내 보호자가 되어 주기도 했고,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대리점 직원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덕분에 그동안 딸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로또 추첨을 하는 날. 1등은 아니었지만 3등에 당첨됐다. 이제 딸과 손자를 만나러 미국으로 갈 수 있다! 갑자기 녀석의 얼굴이 떠오른다. 가만있자... 그 녀석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그 녀석은 행운이었어.

행운의 시선

나는 여섯 살 행운이. 어린이집에 다닌다. 그런데 요즘 너무 우울하다. 우리 집이 이사를 가고 어린이집을 옮기는 바람에 내 이쁜 여자 친구 은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전 나와 함께 동물원으로 악어를 보러 가기로 했던 아빠가 집에 오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아... 인생이 우울하다. 아침 등원길. 울적한 마음에 나는 어린이집 버스에 탔다가 선생님 몰래 버스에서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할아버지가 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손을 잡아끄는 게 아닌가. 처음엔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다고 하며 거절했지만, 이 할아버지 고집이 은근 세다.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팔뚝에 악어 그림을 발견했다. 내가 좋아하는 악어. 근데 할아버지는 용이라고 우긴다. 그 모습이 귀여워 못 이기는 척 따라나섰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예전 어린이집으로 가서 은서에게 뽀뽀를 해줬고, 맛있는 피자도 먹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내 모습이 TV에 막 나오는 거다. 신기하기도 하면서, 허둥거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웃기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참 불쌍하다. 내게는 너무 쉬운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하신다. 문자가 자꾸 오는데 확인하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렸다. 내가 어른을 가르치다니... 또 신기했다. 저녁때쯤 할아버지와 나는 경찰서에 갔다. 책에서만 보던 경찰서를 직접 와보다니... 엄마와 선생님은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오늘 신기한 경험을 참 많이 한다. 그리고 며칠 후. 아빠가 돌아왔다. 엄마랑 나랑 아빠랑 악어를 보러 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 얼굴이 왠지 좋아 보였다. 나 같은 손자가 멀리 있다고 하셨는데, 꼭 만났으면 좋겠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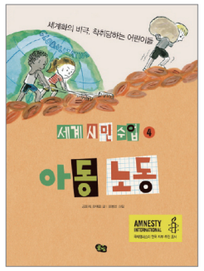
지은이 주성수
출판사 한양대학교출판부
가 격 20,000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고,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가 발족된 2017년은 사회적 경제가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구시대적 경제사고방식이 아닌, 자본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그에 따른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 책은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서 경제조직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연대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 '사회적 경제'와 그에 따른 질적 성장 '사회적 임팩트'에 주목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 등 OECD 국가의 여러 사례와 자료를 통한 객관적 시선으로 사회적 경제와 임팩트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겸 제3섹터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 주성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와 강동송파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 서울시NPO지원센터 제1기 운영위원장을 거쳐 현재 성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사회적 경제 전문가다.

저자는 사회적 임팩트 패러다임의 특성과 전망을 알리면서 이것을 교육과 연구, 정부 정책과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술했으며, 향후 사회적 임팩트는 우리 경제시장 전반에 걸쳐 활용돼 사회혁신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재정 부족 및 사회문제 등의 난제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국,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임팩트 효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의 최신 트렌드를 담은 학술 서적이다.

아동 노동
세계화의 비극, 착취당하는 어린이들



지은이 공윤희, 윤예림
그 림 윤봉선
출판사 풀빛
가 격 12,000원

이제 우리에게도 공정무역이란 용어는 꽤 익숙해졌다. 게다가 얼마 전 경기도 부천시가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후진국에서는 불공정무역이 만연해 있고, 특히 아동 노동과 착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세계화가 어떻게 아동 노동 문제를 만들었는지, 아동 노동 문제와 나의 일상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방글라데시 그림자 공장의 아동 노동 현장, 네슬레,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 카길 등 유명 초콜릿 회사들을 고소한 카카오 농장 아이들의 재판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따스한 터치의 그림으로 만날 수 있다.

행복한 소비 윤리적 소비

지은이 천경희, 홍연금,
윤명애, 송인숙, 이성림
출판사 시그마프레스
가 격 22,000원

윤리적 소비자란 소비생활이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책은 구매운동과 불매운동, 녹색 소비와 로컬 소비, 공정무역 등 윤리적 소비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윤리적 소비 실천이 성숙단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공동체 운동, 간소한 삶, 기부와 나눔까지 친절히 설명한다. 소비 이론에 관심 있는 소비주체부터 전문 마케터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소비에 대한 매우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윤리적 소비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덕목인지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단독매장]
노원점
은평점
연남점
제주점
안산점
오이도점
시흥 정왕점
천안점
광주 송정점
대구 시청점
부산 부산대점
[숍인숍]
안국점
북가좌점
도곡점
미아점
삼청점
목동 부영점
분당 이매점
분당점
의왕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명 하안점
평택 안중점
평택 이충점
부천 소사점
수원 영통점
시흥 연성점
동백점
용인 죽전점
만수점
춘천점
동해점
청주점
청주 율량점
대전 탄방점
전주점
광주점
종로점
울산 신정점
[브랜드공유매장]
경기두레생협 11개소
강원곳간 4개소

따뜻하고 별★난 가게
Store 36.5

스토어36.5 입점 절차

step 01 입점 안내 (상시) — 스토어본부/ 매장 주체 추천
step 02 입점신청 서류/ 샘플(매월) — 참여기업
step 03 입점 검토 (서류/방문 월 1회) — 스토어본부 매장 주체 참여
step 04 입점여부 형태확정 (월 1회) — 스토어본부 매장 주체 참여

- 매장 위치 : http://e-store365.or.kr (오프라인 판매장 게시판 참조)
- 입점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공지사항, 상품기술서 접수 참조)
- 보내는 곳(문의) : store@ikosea.or.kr, counselor@store365.net

따뜻하고 별★난 가게 Store36.5는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이윤 창출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가게, 지역공동체와 깨끗한 환경을 위한 가게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자체 또는 사회적기업 등이 협업하여 사회적기업 상품을 더 많은 곳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전국 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